

# 30조 개미군단의 힘

〈하루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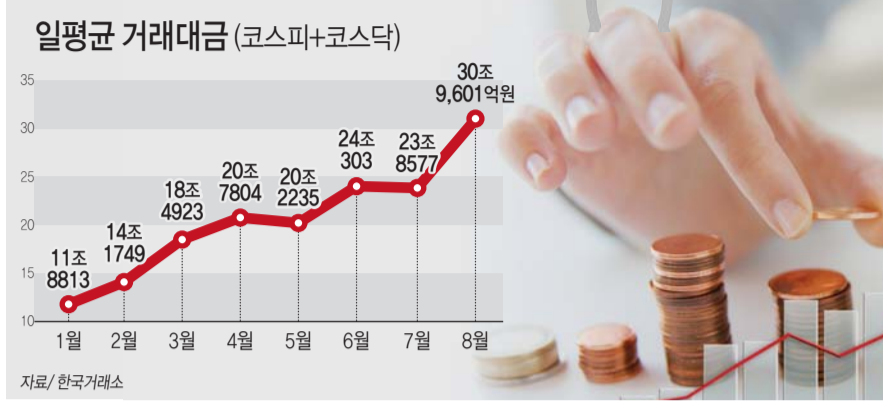
7개월 새 거래대금 규모 3배 급증  
일 단위 거래액 8월에만 7번 경신

개미들 투자처 찾아 주식으로 몰려  
단타로 수익률, 거래 회전율 높여

8월 들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코스피+코스닥)이 3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투자자(개미)들이 국내 주식 투자에 대거 진입하면서 거래 회전율을 높인 영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수록 개미들은 주식을 사들였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증시만한 곳도 없었다. 올 상반기 유동성이 이끈 주식시장에서 개미들도 쓸쓸한 재미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8월 3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8월 일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30조9601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이전 기록은 6월에 집계된 24조303억원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했던 3월 이후 오히려 급증했다. 1월 일평균 거래대금(11조8813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새 거래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증시 하루 거래대금 36조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이 36조원을 넘어섰다. 일 단위 사상최고 거래규모는 8월 들어서만 7번 경신했다. 8월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들락날락한 시기였다.

이는 개미들의 자금력 덕분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0%대의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식 시장으로 몰려든 것이다.

실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돌파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한 주식시장에서 매수 기회를 잡으려는 대기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개미들의 실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체도 외국인에서 개미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올해 들

# 스마트한 투자로 64%

〈수익률〉

어 코스피는 5.8% 올랐는데, 외국인이 25조5283억원 순매도하는 상황에서 개미가 40조3896억원 순매수로 맞서며 주가 상승을 지탱했다.

개미들은 '단타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8월 코스닥 시장 시총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은 84.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바이오, 전기차 테마주를 중심으로 개미들은 싹다 팔았다는 반복하는 매매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18거래일간 주식회전율 상위권에는 코로나19 테마주가 다수 포진했다.

코스닥시장 주식회전율 1위인 일신바이오는 이달 주식 회전율이 1492.8%에 달한다. 상장주식의 15배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 ◆순매수 상위 20종목 평균 수익률 64%

단타매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8월 코스닥시장의 주식 회전율 상위 10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78.5%로 집계됐다. 아직까지는 투자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기관투자자들도 개미의 주식투

자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 6월 이후 성과를 보면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은 상위 20개 종목에서 평균 64%의 수익을 올린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각각 38.6%, 22.8%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매수세를 집중시키면서 주가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이 발간한 '개인 투자자 성과 및 시총 유동성 중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3월 909.09 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가운데 약 370포인트를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종목이 기여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기여도는 220포인트에 불과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대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처음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개미들의 투자 패턴도 과거와 달리 전문적이고, 정교해졌다"면서 "다만,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는 점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온택트 'IFA2020' 이번주 개막 친환경車·홈가전 등 신기술 대거 뽐낸다

기간 줄이고 참여인원·업체 줄여  
LG, '윙'·홈가전 대거 출격 준비  
현대차 '아이오닉' 공식석상 데뷔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IFA)2020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문을 열기로 했다. '온택트' 방식을 적극 도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전시회 형태를 제시할 전망이다. 비록 참여 업체는 대폭 축소됐지만, 전자 업계는 신기술 소개를 늦추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8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IFA2020은 9월 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단, 행사 기간을 9월 5일까지로 3일로 줄였고, 하루 참여 인원도 1000명으로 제한했다. 참여 업체도 크게 줄었다. 대신 대부분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행사에서는 박일평 사장이 직접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에서 얻는 삶의 행복'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집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LG전자는 올레드 갤러리 TV와 엑스뷰 고스피커 등 기존 인기 제품과 함께, LG 시네빔4K를 IFA2020에서 처음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4K 해상도에 100만대 1명암비, 광량을 조절하는 자체 기술을 탑재해 집을 극장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집콕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 윙'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LG 윙은 LG전자의 새로운 폼팩터 스마트폰으로, 디스플레이 1개를 가로로 돌려 'T'자 형태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올해말 공개가 유력하지만, 이에 앞서 IFA2020을 통해 처음 선보



LG 윙으로 추정되는 제품 유출 영상. /Android Authority 영상 캡처



미스틱 블랙 색상의 삼성 갤럭시 Z 폴드2. /삼성전자

여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자동차도 IFA2020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부대행사 'IFA 넥스트'에서 미래차 전략을 소개하는 방법이다.

수소차 전략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오닉' 브랜드도 공식 석상에 데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닉은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로, 아이오닉5를 비롯해 상용화를 앞둔 모델 공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밀레도 새로운 주방보조 시스템 등 신제품을 준비 중이다. 밀레 라인하르

트 진칸 공동회장과 악셀 크닐 마케팅 및 세일즈 부문 최고경영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중국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새로운 5G 칩 기린5000을 공개할 것이 유력하고, 샤오미 자회사 리얼미도 유럽 현지 전략 스마트폰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IFA2020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비슷한 시기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너지를 노리는 모습이다. 9월 1일 갤럭시Z폴드2를 공개하는 언팩2를 예정하고 있으며, 9년만에 새로운 빔프로젝터도 준비중으로 전해졌다.

인텔 역시 IFA2020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9월 초 신규 프로세서를 공개한다. 그 밖에도 업체들이 하반기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코로나19에도 신기술과 신제품 공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IFA2020이 코로나19에도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둔다면 국제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대학·산업체 등서 AI인재 양성 박차

▶▶ 1면 'IT·금융사 손잡고'서 계속

SKT, 16개 대학교에 'AI 커리큘럼' KT, AI 실습·개발 교육 플랫폼 구축

이밖에 실무진과 대학, 연구기관의 AI 핵심인력 30여명이 참여하는 AI 구루 그룹을 구성하고, 라운드테이블 프로세스를 마련해 기업이 당면한 AI 현안을 공개, 논의한다.

### ◆AI인재 확보 움직임 활발...교육까지 나서는 통신사

종합 ICT 기업을 선호한 SK텔레콤도 삼성전자, 카카오와 AI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IT 전시회 'CES 2020'에서 삼성전자, 카카오와 'AI 초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와는 30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동맹을 통해 AI 공동스피커, AI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박정호 사장은 "AI 분야에서 대



LG전자와 LG윙플러스 관계자들이 AI인재 함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한민국 ICT 기업 간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국내에서 플레이어들이 능력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에 다 내주고 유저가 될 판"이라고 협력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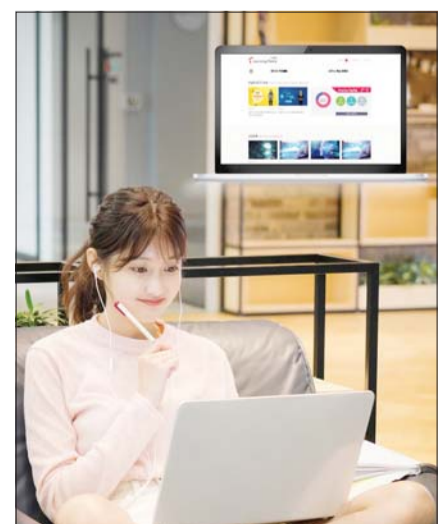
AI 인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KT는 AI 산업을 일으키는 핵심을 인재확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한양대, ETRI와 인재양성 플랫폼을 조성해 AI 실습과 개발을 위한 'AI 교육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실무형 AI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각 산업별 특성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현재 학위, 엘리트 중심으로 인재가 양성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인재 플랫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AI 전문가가 기술 이룬과 비즈니스 사례를 강의하는 'AI 커리큘럼'을 서울대 등 16개 주요 대학 학점 인정 정규과목으로 제공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AI 동맹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AI 기술이 산업현장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모델이 SKT 소속 AI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술 이룬과 비즈니스 사례 등을 강의하는 'AI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